

## 목 차

### ■ 문화 특집 ■

#### 문화 인프라

##### <영국·런던>

1. 템스강 지역의 생태·문화·관광정보 제공
2. 공공장소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의 방송서비스 확대

##### <프랑스·파리>

3. 시립미술관 상설전시장 무료입장 허용
4. 시립도서관 책 구입 증가와 시설 확충
5. 시민의 문화공유를 목적으로 문화분야 예산 늘려
6. 거리예술과 서커스 극단 활동 지원
7. 조형예술의 전시 및 작업 공간 확충
8. 시립수영장이 미술·산업박물관으로 재탄생

##### <호주>

9. 가상관광(Virtual Tour) 홈페이지 인기

##### <일본·동경>

10. 일본판 청계천 복원인 니혼바시 경관 살리기 추진
11. 47년 된 야외 음악당을 철거하고 도서관으로 정비

##### <북경>

12. 북경 서성구 지역사회단위 디지털 영화관 건립
13. '디지털 북경정보 부스'에 문화위락 채널 개통

##### <싱가포르>

14. 주요거리에 역사 재현 상징물 설치

#### 문화 프로그램

##### <영국·런던>

15. 대중음악 창작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지원
16. 노인을 위한 축제 'Capital Age Festival 2006' 개최

(뒷면에 계속)

## 목 차

### 문화 프로그램

#### <영국·런던>

17. 런던 건축 비엔날레 개최
18. 모두가 참여하는 '춤의 축제, Big Dance' 개최
19. 런던 최대 규모의 무료 음악축제 개최
20. 게이-레즈비언 문화축제인 'EuroPride London 2006' 개최
21. 어린이를 위한 '놀이의 날' 행사 개최
22. 남아시아인을 위한 '런던 멜라'(London Mela) 축제 개최

#### <프랑스·파리>

23. 연극과 춤 공연 등 시립 극장 프로그램 더욱 다양해져
24. 여름맞이 'fête de la musique' 음악축제 개최

#### <베를린>

25. 3단계 시민참여를 통한 베를린장벽 보전 토론회 개최
26. 제4회 세계 모래조각 축제 개최

#### <시드니>

27.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거리 및 야외공연 기준 마련

#### <북경>

28. 주말 상성구락부 세미나 개최

### 문화 산업

#### <런던>

29. 시청 신청사 관광명소로 인기

#### <베를린>

30. 문화관광의 잠재력 증대를 위해 유럽 지역개발기금 투입

#### <시드니>

31. 축제, 이벤트,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동경>

32. '문화의 거리' 이미지 정착을 위한 현책타운 조성
33. 상가 활성화와 연계한 예술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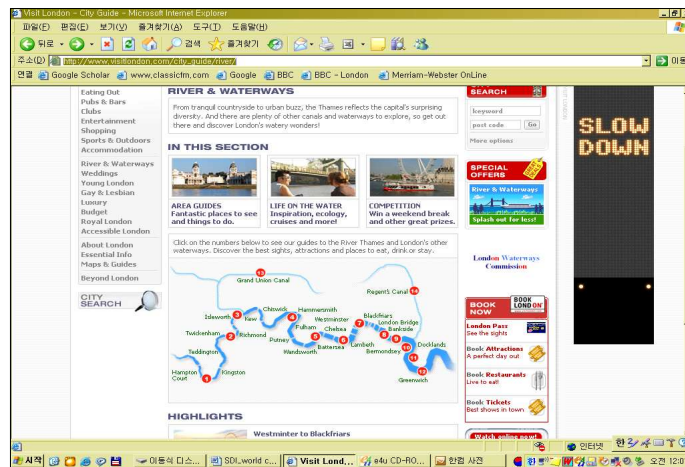
#### <북경>

34. 문화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혁신 촉진센터 운영

<영국·런던>

1. 템스강 유역의 생태·문화·관광정보 제공

런던市 공식 관광사이트인 'Visit London'에서는 관광명소, 숙박, 쇼핑, 먹거리, 놀거리와 같은 관광정보와 함께 '강과 수로' 코너를 마련해 템스강의 상·중·하류와 산업혁명시대 이전에 만들어져 아직 보존·이용되고 있는 수로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런던을 관통하는 템스강과 주요 수로를 14개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클릭 한번으로 각 지역의 숙소, 역사, 먹거리 정보를 보여준다. 상세 지도를 내려받을 수 있는 '템스강 유역 지도 서비스'도 제공하는 이 웹사이트는 관광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주고 있다.



Visit London 사이트의 템스강과 수로 관련 문화관광 소개 화면

(www.visitlondon.com/city\_guide/river)

2. 공공장소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의 방송서비스 확대

영국 사우스요크셔주 로더럼(Rotherham)市는 영국 공영방송인 BBC와 공동으로 공공장소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한 방송서비스를 시작했다. 맨체스터, 버밍햄, 리버풀, 리즈, 헐 등 대도시의 공공장소에 주로 설치해서 운영하던 대형 스크린 방송사업에 로더럼市와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의 일상과 행정서비스, 지역에서 만들어진 예술작품과 영화, 지역사회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 8개월간 BBC 관계자가 市에 상주하면서 일정기간 시험운영할 계획이다. 대형 스크린에는 지역정보뿐 아니라 BBC의 세계적인 통신망과 연결되어 주요 행사, 뉴스, 스포츠, 예술 및 문화정보도 함께 제공될 계획이다. 2006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시험 사업기간에는 고급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로열 오페라하우스의 공연 실황을 무료로 중계한다.

(www.publictechnology.net/modules.php?op=modload&name=News&file=article&sid=5056&mode=thread&order=0&thold=0)

## <프랑스·파리>

### 3. 시립미술관 상설전시장 무료입장 허용

파리市的 13개 시립미술관 상설전시장에 대한 무료입장 허용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1년의 53만 7000명에 비해 2005년에는 76만 명 이상이 시립미술관을 이용했는데, 市는 2001년 이후 미술관 3곳의 정비를 위해 8억 6500만 유로(약 1조 3000억 원)를 투자했다. 아시아 미술관인 세흐뤼시(Cernuschi) 미술관의 전시장 확장공사, 근대 미술관 재개장, 뽀띠 팔레(Petit palais) 미술관 재정비가 대표적인 예다. 뽀띠 팔레 미술관은 2만 2000m<sup>2</sup> 공간 중 7000m<sup>2</sup>를 복원공간으로 할애하고 임시 전시실과 대강당, 정원과 카페를 갖췄다. 특히 파리 시립미술관들은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문화를 공유해야 한다는 슬로건 아래 시각·청각·정신지체 장애우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ww.musees.paris.fr)

### 4. 시립도서관 책 구입 증가와 시설 확충

파리市 20개 區의 56개 시립도서관과 6개의 문화재 및 특별(음악, 영화, 미술 혹은 역사) 시립도서관이 더욱 풍부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파리시민의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하는 이 도서관들에 약 33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도서 대출 횟수가 1200만 회에 달하며, 약 850만 명이 매년 이용하고 있다. 특히 市에서는 2001년과 2004년 사이에 30% 정도 도서구입 예산을 늘렸으며, 더 많은 공간 확보를 위해 마흐귀에리뜨 유흐르나(Marguerite Yourcenar, 15區)와 바노레(Bagnolet, 20區)에 미디어 도서관을 신축하고 오래된 도서관을 재정비하고 있다. 2004년부터 꾸준히 도서관 인터넷 망을 구축해 지금은 市 홈페이지에서 시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600만 권에 이르는 도서의 목록을 볼 수 있다.

(www.bibliotheques.paris.fr)

### 5. 시민의 문화공유를 목적으로 문화분야 예산 늘려

2001년 이후 파리市 문화정책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파리市는 문화공유를 목적으로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비공개 문화재를 공개하는 등 시민의 예술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 임기 동안 문화분야에 3억 5200만 유로(약 42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서관 새 단장, 문화재 복원, 아틀리에 활성화, 시립박물관 공사, 새로운 문화공간 개발 등 여러 사업에 힘쓰고 있다.

한 예로,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는 상설전시회 한해 파리市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이는 전체 이용객 수를 41% 증가하는 효과를 낳았는데, 특히 가족단위 입장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미 전시를 본 관객이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박물관을 방문해 교육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파리시청에서 여는 무료 전시회에도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A Paris: Le magazine d'information de la Mairie de Paris, 19호)

## 6. 거리예술과 서커스 극단 활동 지원

파리市가 매년 460만 유로(약 5억 5200만 원)를 서커스 활동에 지원하고, 서커스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나 훈련장소도 제공하기로 했다. 2006년 6월에 있었던 서커스조합에 대한 지원은 서커스 극단에 물적인 지원뿐 아니라 공연 활동을 소개하고 각 해당 지역 안에 서커스와 거리예술 상설 행사들도 운영하고 있다. 거리예술도 2001년 이래 650만 유로(약 7억 8000만 원)를 동시에 지원받아 여러 페스티벌 사이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 市는 극단 설립 절차를 간소화해 거리예술인들이 대중에게 더 많이 접근하도록 돕고 있다.

(www.culture.paris.fr)

## 7. 조형예술의 전시 및 작업 공간 확충

파리市 문화정책의 핵심은 창작 활동과 예술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있는데, 특히 예술가가 예술 활동에 적합한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00년 말 파리에는 865개의 예술가 아틀리에가 있었는데 2007년에는 266개의 아틀리에가 더 생길 예정이다. 르 포앵 에페메흐(Le Point Éphémère) 같은 새로운 무대 공간(영상예술, 음악, 춤 등)이 생길 예정이며, 공사중인 메종 드 메탈로(Maison des Métallos)는 아마추어의 문화활동 아틀리에뿐 아니라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해 예술이론 등을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www.grandprojets.paris.fr)

## 8. 시립수영장이 미술·산업박물관으로 재탄생

파리市에서 북쪽으로 228km 정도 떨어진 릴(Lille) 근방 루베(Roubaix)市에 있는 '앙드레 딜리장: 미술·산업박물관'(Musée d'art et d'industrie André Diligent)은 옛 후베 시립수영장을 리모델링한 박물관으로 현대미술과 직물산업에 대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건축가 릴로아 알베르 바에흐(Lillois Albert Baert)가 1932년에 지은 이 건물은 1985년에 건축가 장 폴 필리폰(Jean-Paul Philippon)이 새롭게 정비해 근대 시립 문화유산이 박물관으로 재탄생된 대표적인 예가 되었다.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영장으로 불리는 이 건물은 양쪽의 복도식 샤워장을 각각 상설전시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박물관 부띠끄에는 수영장 물을 데우던 시설물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수영장을 그대로 이용한 전시실은 물이 있던 공간을 불투명 유리로 덮어놓았으며, 옛 욕조들도 그대로 전시하고 있다. 보자르 전시실 안쪽의 정원에는 염색재료로 사용되는 식물을 재배해 이 지역 대표 산업이던 직물산업을 연상시킨다.

대강당, 도서관, 부띠끄, 식당 등을 갖춘 종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이 박물관에서 매년 각종 회의나 문화관련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파리의 다른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매달 첫 번째 일요일은 무료입장이다. 이 박물관에서 6월 16일부터 앙드레 함부르크(André Hambourg: 1909-1999)의 '르 마그렐' (Le Maghreb) 展과 '피에르 빅토 갈랑' (Pierre-Victor Galland: 1822-1892) 展이 열리고 있다.

(김나래 통신원 직접 취재 whitenaar@hotmail.com)

## <호주>

### 9. 가상관광(Virtual Tour) 홈페이지 인기

호주 수도 캔버라市는 인터넷에서 가상관광(Virtual Tour)을 즐길 수 있도록 가상관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상관광 홈페이지는 캔버라市의 주요 관광명소 등 다양한 볼거리를 해설을 곁들여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있어, 직접 市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실제 방문한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방문 예정자는 각종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캔버라는 호주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등의 도시에 비해 위치, 규모, 역사, 자연환경, 볼거리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 관광객 유치에 위한 TV 광고 시간을 늘리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가상관광 홈페이지 초기 화면

([www.virtualcanberra.gov.au](http://www.virtualcanberra.gov.au))

## <일본·동경>

### 10. 일본판 청계천 복원인 니혼바시 경관 살리기 추진

동경都 도심에 있는 니혼바시(日本橋) 경관 살리기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판 청계천 복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니혼바시는 1911년에 건설된 동경 도심의 다리다. 르네상스 양식의 석조 아치로 일본의 중요 문화재며 주변은 에도시대 이래 동경의 경제·문화·교통의 중심지였다. 2005년에 이 다리 위를 가로지르는 수도 고속도로가 경관을 해친다는 총리의 지적이 있을 후 경관 살리기 계획이 추진됐다.



수도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니혼바시

2006년 6월 12일 일본 총리 산하 관련 간담회에서 니혼바시 위를 지나는 수도 고속도로 2km 구간을 두고 지하 이설, 우회도로 건설, 철거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결과 지하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지하 이설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지만 경관 보존과 수도 고속도로의 네트워크 기능 유지 등의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지하 이설은 빠르면 5~6년 안에 완공된다. 주변에는 전통 예술을 상영하는 극장이나 오락시설, 시민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 등을 조성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www.yomiuri.co.jp/tab/news/20051231tb04.htm](http://www.yomiuri.co.jp/tab/news/20051231tb04.htm))

## 11. 47년 된 야외 음악당을 철거하고 도서관으로 정비

일본 후쿠야마(福山)市 중앙공원에 있는 야외 음악당이 중앙 도서관의 주변 정비로 철거됐다. 시민들은 반세기 동안 음악문화 등을 지켜온 市의 문화유산 해체를 아쉬워했다. 市 공원녹지과에 의하면, 이 야외 음악당은 아마추어 밴드 등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용이 감소해 '후쿠야마 장미제' 관련 이벤트나 시민단체의 집회에 이용되는 정도였다. 음악당은 '후쿠야마 장미제' 관련 이벤트의 하나로 열린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47년간의 야외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마무리지었다. 중앙 도서관은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의 도서관동(약 9700m<sup>2</sup>)과 지상 4층 건물의 주차장동(130대분)으로 신축된다. 총 공사비 42억 7500만 엔(약 354억 원)으로 2006년 7월에 착공, 2008년 7월 개장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 콘서트로 47년 역사의 막을 내린 야외 음악당

([www.yomiuri.co.jp/e-japan/hiroshima/news003.htm](http://www.yomiuri.co.jp/e-japan/hiroshima/news003.htm))

## <북경>

## 12. 북경 서성구 지역사회단위 디지털 영화관 건립

북경市 서성구(西城區)는 6월 2일 市에서 처음으로 지역사회단위 디지털 영화관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북경市 문화국장, 서성구 관계자 및 지역사회 주민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서성구 부구청장은 디지털 영화관 건립을 시작으로 문화 관련 사업을 폭넓게 수행해 주민의 문화생활 수준 제고에 노력하겠다는 區 방침도 소개했다. 서성구는 북경市 지역사회 디지털 영화관 건립 사업의 4개 시범지구 중 하나로 市는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기간에 시민들이 한달에 한 편 이상의 공익영화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성구는 연말까지 준공되는 서성구 문화관 신관 등 7개 지역에 디지털 영화관을 개설할 예정이다.

([www.bjwh.gov.cn/27/2006\\_6\\_9/3\\_27\\_21010\\_0\\_0\\_1149820272242.html](http://www.bjwh.gov.cn/27/2006_6_9/3_27_21010_0_0_1149820272242.html))

## 13. '디지털 북경정보 부스'에 문화위락 채널 개통

북경市 문화국은 市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조해 시민에게 통합 공공문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북경정보 부스'(북경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 제공 전문 부스)에 문화위락 채널을 개설했다. 이 채널에는 공연, 영화, 위락장소, 인터넷 카페, 도서관, 문화관, 공공문화 활동 등 7개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32개 극장, 56개 영화관, 1038개 노래방·무도장, 3071개 음악·영상제품 판매점, 954개 인터넷방, 25개 공공도서관 및 20개 문화관에 대한 정보와 공연, 영화 등 문화활동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www.bjwh.gov.cn/27/2006\\_5\\_25/3\\_27\\_20708\\_0\\_0\\_1148518369261.html](http://www.bjwh.gov.cn/27/2006_5_25/3_27_20708_0_0_1148518369261.html))



## <싱가포르>

### 14. 주요거리에 역사 재현 상징물 설치

싱가포르는 국가 상징물 또는 역사성을 지닌 관광지 부근 도로상에 도보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역사재현 조형물을 설치해 관광 중 도보이동 시간에도 지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 거리의 주요 역사 재현물

([sydney.klafir.or.kr/center/c01\\_view.jsp?pkey=344&cPage=7](http://sydney.klafir.or.kr/center/c01_view.jsp?pkey=344&cPage=7))

## 문화 프로그램

## <영국·런던>

### 15. 대중음악 창작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지원

영국 예술원 런던 지부(Arts Council England, London)에서는 젊은 음악가들의 창작활동을 전담 하도록 음반제작 유통업체와 음악학교 관계자가 공동 참여하는 Sound Connections를 조직, 재정을 후원하고 있다. Sound Connections는 현재 런던 시내 9개 자치구에 LYMAZ(London Youth Music Action Zone)를 설치, 운영하여 천여 명의 젊은 음악가가 참여하도록 이끌어 낸 바 있고, 인터넷 신문도 정기 발행하고 있다. 영국 예술원은 지역별로 지부를 두고 민·관·학간 연계를 통해 예술창작, 유통, 감상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독립기구로, 대부분의 예산은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www.artscouncil.org.uk/regions/project\\_detail.php?rid=3&sid=9&id=47](http://www.artscouncil.org.uk/regions/project_detail.php?rid=3&sid=9&id=47))

### 16. 노인을 위한 축제 'Capital Age Festival 2006' 개최

런던시는 런던에 거주하는 노인을 위한 축제인 'Capital Age Festival 2006'을 2006년 8월 20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 축제는 노인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으로 노인은 모든 행사와 공연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밴드공연, 합창, 댄스공연과 전시회,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템스강 주변과 사우스뱅크(South Bank)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곳곳에 쉴 곳을 마련하고 음식도 제공해 행사 당일 노년만의 공간과 행사로 채워 축제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www.london.gov.uk/mayor/older\\_people/capital\\_age\\_festival.jsp](http://www.london.gov.uk/mayor/older_people/capital_age_festival.jsp))



## 17. 런던 건축 비엔날레 개최

2006년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런던 건축 비엔날레가 개최되었다. '변화'라는 주제로 열린 2006년 행사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2004년 런던 건축 비엔날레에 비해 행사지역 규모와 참가조직 수가 늘어 기대를 모았다. 건축학도의 출품작, 전문가의 설치 미술, 영화, 강연, 공연 행사 등이 도시 건축과 공간 발전의 주제인 역사와 개발, 도심 재생을 상징하는 런던 도심의 킹스크로스, 시티, 서더크(Southwark) 지역을 잇는 5km의 전시 공간에서 펼쳐진다. BBC 런던은 건축가 주간을 맞아 신축 고층건물 때문에 달라지고 있는 런던의 도심 풍경에 대한 공개 토론과 '최악의 건물' 투표 등의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www.architectureweek.org.uk/regional06.asp?region=13](http://www.architectureweek.org.uk/regional06.asp?region=13))  
([www.bbc.co.uk/london/features/architecture\\_week\\_2006/index.shtml](http://www.bbc.co.uk/london/features/architecture_week_2006/index.shtml))

## 18. 모두가 참여하는 '춤의 축제, Big Dance' 개최



빅댄스 축제의 상징

2006년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영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무용 축제가 열린다. 특이한 점은 전문가의 춤 공연을 일반 시민이 관람하는 기존 축제 형식을 벗어나 참석자 모두가 어디서나 춤을 즐길 수 있도록 '참여'가 중심이 되어 준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연 장소도 특정 장소로 제한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학교, 거리, 헬스클럽, 무대, 공원, 박물관, 극장 및 쇼핑센터 등 일상적인 장소가 축제의 장으로 변신하게 된다. 이 행사는 영국예술원 런던지부가 후원한다.

([www.bigdance.org.uk](http://www.bigdance.org.uk))

## 19. 런던 최대 규모의 무료 음악축제 개최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런던 최대 규모의 무료 음악축제인 'Rise: London United'가 2006년 7월 8일 핀스버리 공원(Finsbury Park)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런던 시민을 위해 무료로 진행된다. 이 축제는 힙합, 재즈, 팝, 레게 등 각 음악 분야의 유명 가수가 나오는 큰 행사가 될 전망이다. 행사 관계자는, 다양한 인종과 커뮤니티의 존재가 런던을 런던답게 만든다는 취지 아래 함께 모여 즐거움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행사 목적이라고 밝혔다. 런던 시장이 제안한 이 행사는 올해로 6년째를 맞는다.

([www.risefestival.org](http://www.risefestival.org))

## 20. 게이·레즈비언 문화축제인 'EuroPride London 2006' 개최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게이·레즈비언 문화축제인 'EuroPride London 2006'이 2006년 6월 17일에서 7월 1일까지 런던에서 열렸다. 이 축제는 70여종의 전시회, 영화상영, 스포츠 경기, 코미디, 실내공연, 음악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7월 1일에 있는 동성애자 가두행진이었는데 약 50만 명이 참여했다. 가두행진이 있는 옥스퍼드 거리와 리젠트 거리는 차량이 통제되고 트라팔가 광장, 소호, 레체스터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이벤트가 열렸다.

([www.london.gov.uk/mayor/equalities/europride/index.jsp](http://www.london.gov.uk/mayor/equalities/europride/index.jsp))

## 21. 어린이를 위한 '놀이의 날' 행사 개최

영국 어린이놀이협회(Children Play Council)는 지난 2006년 2월 어린이의 놀 권리를 알리고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하는 놀이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놀이의 날'(Play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를 위해 어린이놀이협회와 각 구청의 협조로 여러 장소에 놀이시설을 설치해 어린이를 위한 특별 놀이공간을 조성했다. 런던의 타워햄릿과 해머스미스 등 여러 지역에서 미로찾기, 암벽오르기, 댄스교습, 스포츠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www.playday.org.uk/view.asp?ID=28](http://www.playday.org.uk/view.asp?ID=28))

## 22. 남아시아인을 위한 '런던 멜라'(London Mela) 축제 개최

런던시에 거주하는 남아시아인들을 위한 무료 축제인 '런던 멜라'(London Mela) 축제가 2006년 8월 13일 개최된다. 행사기간에 유명 아시아 음악인 초청, 인도의 볼리우드(Bollywood) 영화 상영과 공연 등이 있고, 라디오에서는 런던의 베스트 남아시아 음악에 대한 토크쇼가 진행된다. 아시아 문화의 만화경을 담은 전시회와 어린이를 위한 놀이동산도 함께 준비된다. '멜라'는 인디언 말로 '만남'을 의미하며, 이 행사를 통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만나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시관계자는 말했다.

([www.london.gov.uk/mayor/asian\\_london/index.jsp](http://www.london.gov.uk/mayor/asian_london/index.jsp))

### <파리>

## 23. 연극과 춤 공연 등 시립 극장 프로그램 더욱 다양해져

파리 시립 극장들이 2006년부터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떼아뜨르 13의 경우 '13의 여름 무대'를 2006년 7월 16일까지 공연하며, 떼아뜨르 14의 경우에도 2006년 8월 한 달 내내 공연할 예정이다. 압베스(Abbesses) 극장에서는 국제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이 연장공연된다. 샤텔레(Châtelet) 극장은 지오프호이 라스니에(Geoffroy L'Asnier) 거리의 스튜디오를 재건축해 '겨울 춤'이라는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다.

([www.culture.paris.fr](http://www.culture.paris.fr))

## 24. 여름맞이 'fête de la musique' 음악축제 개최

올해로 25주년을 맞는 'fête de la musique' 음악축제가 프랑스 전역에서 열리고 있다. 전통음악에서 현대음악까지 모든 장르를 불문하고 프로와 아마추어 구별 없이 음악을 하고 즐기는 사람이라면 모두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 모리스 플르헤(Maurice Fleuret)의 제안으로 1982년에 처음 열린 이 축제는, 매년 6월 21일에 열리는 썬 장(Saint-Jean) 축제 전통과 관련이 깊다. 1985년부터는 베를린, 부다페스트, 바르셀로나, 이스탄불뿐 아니라 뉴욕, 마닐라에서도 이 축제가 열려 이제는 유럽 전역의 음악축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시내뿐 아니라 교외 지역, 장애우나 환자가 있는 요양원 같은 곳에서도 콘서트가 열려 사회 소외계층도 음악 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배려하고 있다.

([www.fetedelamusique.culture.fr/index\\_flash.php](http://www.fetedelamusique.culture.fr/index_flash.php))

### <베를린>

## 25. 3단계 시민참여를 통한 베를린장벽 보전 토론회 개최

베를린市 도시개발부와 베를린장벽 시민연합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베를린장벽의 보전을 위한 해법을 찾는 공동토론회를 계획했다. 토론주제는 '현재의 경계설치물이 어떻게 보이는지', '분단의 역사를 어떻게 보여주어야 할지', '이 장소를 미래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등이다. 발전적 토론회를 위해 충분한 기간 인터넷 온라인 포럼을 열고, 베를린장벽 현지답사를 거쳐 최종 토론회에 이르게 된다.

온라인 포럼은 2006년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웹사이트([www.berlin.de/mauerdialog](http://www.berlin.de/mauerdialog))에서 열리며, 시민들은 제안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베를린장벽의 발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2006년 6월 24일과 7월 2일 양일간 전문가와 함께 베를린장벽을 둘러 본 시민들은 현장답사를 한 느낌과 결과를 온라인 포럼에서 토론하게 된다. 최종 시민토론회는 2006년 9월 5일 오후 7시에 베를린장벽 기념보존소에서 열린다.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606/nachricht2305.html](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606/nachricht2305.html))

## 26. 제4회 세계 모래조각 축제 개최

2006년에 4번째 맞는 세계 모래조각 축제인 'SANDSATON'이 2006년 6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베를린 중앙역과 총리관저 사이에서 개최된다. 30명의 전문예술가가 6월 8일부터 10m 높이의 모래탑에 판타지를 연출하고 있다. 2006년 SANDSATON 주제는 '공의 매력'으로 인도, 덴마크, 아일랜드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예술가들은 공의 매력에서 영감을 받아 자유롭게 표현하게 된다. 2003년과 2004년에 모래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은 각각 6만 명과 10만 명 이상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www.berlin.de/kultur-und-tickets/events/sandskulptur.html](http://www.berlin.de/kultur-und-tickets/events/sandskulptur.html))

## <시드니>

### 27.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거리 및 야외공연 기준 마련

축제와 이벤트의 도시 시드니市の 주요거리에서 거리 약사 연주, 마임(mime) 등 거리공연이 많다. 市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거리공연과 관련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공연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거리 및 야외공연 심사위원회(Busking Review Committee)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공연을 위해서는 市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한 장소에서 2시간 이내로만 공연할 수 있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및 건물과 상점의 입구를 막아서는 안되며, 상품을 매매할 수 없는 것 등이 주요 거리공연 기준이다.



시드니市 거리에서의 호주 원주민 거리공연 장면

([www.cityofsydney.nsw.gov.au/Council/documents/policies/CommunityServices/cs\\_busking\\_August04Policy.pdf](http://www.cityofsydney.nsw.gov.au/Council/documents/policies/CommunityServices/cs_busking_August04Policy.pdf))

## <북경>

### 28. 주말 상성구락부 세미나 개최

2006년 6월 3일 북경시 동성구(東城區) 문화관에서 주말 상성구락부 세미나가 열렸다. 상성(相聲)은 우리의 만담에 해당하는 공연예술로 북경시민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문화연합회와 중국 중앙TV, 북경TV, 천진TV 등 TV 매체 및 인민일보, 중국문화보 등 10개 신문사의 문화관련 담당자와 주말 상성구락부 연기자, 상성 애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통 공연예술인 상성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세미나는 북경TV, 북경일보 등에서 2006년 6월 5일부터 시리즈로 소개하고 있다.

([www.bjwh.gov.cn/27/2006\\_6\\_7/3\\_27\\_20949\\_0\\_0\\_1149641888101.html](http://www.bjwh.gov.cn/27/2006_6_7/3_27_20949_0_0_1149641888101.html))

<런던>

29. 시청 신청사 관광명소로 인기

2002년 7월에 개관한 런던시청 신청사는 런던 관광명소인 타워 브리지(Tower Bridge)와 타워 오브 런던(Tower of London), 신 개발지인 사우스뱅크(Wouth Bank) 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시내 주요 강변 도로를 '여왕의 산책로'(Queen's Path)로 지정해 보존하고 있는 강변 산책로에서도 접근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특이한 건물 설계와 전면 유리를 통해 주변 경관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런던시청 청사는 관광명소 및 영화 촬영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평소 주중에는 일부 시설만 일반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1년에 10일 정도 미공개 시설을 선보이는 특별 전시 기간을 갖는다.



템스강변의 런던 신청사 전경

([www.london.gov.uk/gla/city\\_hall/index.jsp](http://www.london.gov.uk/gla/city_hall/index.jsp))

<베를린>

30. 문화관광의 잠재력 증대를 위해 유럽 지역개발기금 투입

포츠담 지역에 새로운 텔레비전 박물관 건립을 위해 베를린 시의회는 숙고 끝에 유럽 지역개발기금 투입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문화관광 인프라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문화의 놀라운 공헌을 통해 도시의 관광 매력도를 한층 고양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2008년까지 문화관광의 잠재력 증대를 위해 2050만 유로(약 247억 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박물관·전시장·기념 장소 신축, 외관보수, 전반적인 현대화 및 관광인프라 증진과 연관된 사업에 한하여 재정 투입이 가능하다. 유럽 지역개발기금은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적어도 50%의 비용을 공동출자하게 된다.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6/06/08/41623/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6/06/08/41623/index.html))

## <시드니>

### 31. 축제, 이벤트,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호주의 도시들은 축제, 이벤트,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호주의 주요 도시들은 도심 내에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있고, 수변 경관도 뛰어난 곳이 많으며, 사시사철 활동하기 좋은 기후라 각종 축제와 이벤트 개최 및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자연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 많은 도시들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에 위해서 TV 광고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드니의 경우 연초 신년축하 불꽃놀이를 시작으로 시드니 페스티벌, 시드니항 주간, 세계 동성애 축제, 시드니 영화제 등 크고 작은 축제와 이벤트를 연중 개최하고 있다. 또한 시드니 하버 브리지 오르기, 선물집 탐방 등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최근 시드니를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이 줄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일본을 직접 방문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sydney.klafir.or.kr)

## <동경>

### 32. '문화의 거리' 이미지 정착을 위한 헌책타운 조성

동경都 수도권 소재 36개 고서점(古書店)이 모이는 이케부쿠로(池袋) 헌책 축제가 2006년 4월 토시마(豊島) 구립공원에서 열렸다. 도내 최대의 판매장 면적을 확보한 이 헌책 축제에서, 고서와 레코드가 전시됐다. 1930년대부터 '이케부쿠로 몬파나스'라고 불리는 지역에 많은 작가나 예술가가 모여 들었는데, 특히 조시야야 모원 등 구내 모원에는 많은 문화인들이 살고 있다. 區는 '문화의 거리'라는 이미지 정착을 목적으로 2005년 4월 도내 고서점의 협조를 얻어 헌책 축제를 처음 개최했는데 이번이 3번째다. 축제장에는 책 제목이나 내용을 알리는 안내 프로그램뿐 아니라 레코드나 사진집, 영화 팸플릿도 두루 갖췄다.

(www.yomiuri.co.jp/book/news/20060420bk0b.htm)

### 33. 상가 활성화와 연계한 예술 이벤트

동경都 츠시다이문(津市大門) 상가에서 2006년 5월에 예술 이벤트 '몽마르뜨'가 열려 쇼핑객들이 길거리 예술을 즐겼다. 많은 예술가가 모이는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뜨와 같이 시민이 예술을 가까이에서 느끼게 해 상가 활성화와 연결하려는 취지로 이 이벤트가 열렸다. 아케이드 거리에서는 유화나 수채화 등 약 60점의 작품이 전시되었고 쇼핑객은 작품을 보며 산책을 즐겼다. 이 외에 다양한 길거리 공연도 선보였다. 전시회 실행위원회 관계자는 상가에는 그림 소재가 되는 것이 많고 이벤트를 통해 이를 소개함으로써 이 상가를 누구나 예술을 즐기는 거리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www.yomiuri.co.jp/e-japan/tokyotama/news001.htm)

## <북경>

### 34. 문화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혁신 촉진센터 운영

북경市 조양구(朝陽區) 정부는 문화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혁신 촉진센터 개설에 관한 의견(조례에 상당)'에 의해 설립된 문화혁신 촉진센터를 통해 활발한 문화산업 관련 조사연구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제까지의 성과를 보면 '북경 풍화 자동차영화관 조사 보고', '북경 조양구 유행음악 주간 세미나', '민간문화 보호지구와 문화혁신 관계에 대한 연구' 등의 연구를 했고, 문화 위락장소 기본정보 조사도 했다. 문화혁신 촉진센터의 다음 과제로는 '여자 12악방(여성 12명으로 구성된 연주단으로 현재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의 경제적 효과와 국제적 영향', '고가구 산업이 유발하는 고용창출 효과', '오락산업 고용현황 분석' 등 3개의 전문조사 활동과 '조양구 문화혁신 지도' 출판, 문화산업박람회 준비사업 등이다.

([www.bjwh.gov.cn/27/2006\\_6\\_12/3\\_27\\_21034\\_0\\_0\\_1150075189098.html](http://www.bjwh.gov.cn/27/2006_6_12/3_27_21034_0_0_1150075189098.html))